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in Korea

정은경(EunKyung Chung)(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chung@ewha.ac.kr

구하린(Halin Ku)(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lalalinku@gmail.com

윤정원(JungWon Yoon)(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jyoon@jnbu.ac.kr

목 차

1. 서론
2. 관련 연구
3. 연구 방법
4. 결과 분석
5. 논의 및 결론

초 록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유학생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폭넓은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로 유학을 온 해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 관찰기록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를 조사하였다. 유학생들의 정보탐색행위를 보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높고, 검색엔진을 많이 사용하며, 정보탐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주 찾는 정보의 주제는 건강, 학업, 쇼핑, 음식/외식, 오락, 생활 등으로 나타났다. 탐색 주제에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탐색행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과 음식/외식에서는 모바일 앱의 이용률이 높았으나 나머지 주제 분야에서는 검색엔진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특히, 학업 분야 탐색에서 학술 특화 정보원의 사용이 높지 않은 점, 유학생이나 이민자의 정보탐색에서 주요 정보원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친구/가족이 정보원의 이용이 적은 점은 본 연구결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탐색 결과와 만족도의 경우 학업 관련 정보탐색에서는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일부만 찾았다는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색 결과에 만족하고 향후 탐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쇼핑과 생활 분야는 필요한 정보를 찾았다는 비율은 높았으나, 탐색 결과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요구를 반영한 정보서비스 시 고려할 점,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키워드 : 정보추구행위, 유학생, 일상생활, 일상관찰기록법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in daily life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using the method of online diary survey. In terms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t was found that smartphone usage was high overall, with a frequent use of search engines and high satisfaction with search results. The topics frequently searched by international students included health, academics, shopping, food/dining, entertainment, and living. Differences i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were observed depending on the topics of information needs. While mobile apps were highly utilized for shopping and food/dining, search engines were used for over 50% of the other topics. Particularly, for the academic information needs, the utilization of specialized academic information sources was not high; also, the usage of friends/family, which is considered a major source of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or immigrants, was low. Additionally, for the academic information needs, despite a high proportion of respondents reporting that they were unable to find all or part of the desired information,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search results and indicated that further searches were not necessary. On the other hand, for the shopping and living related information needs, although a high proportion of respondents reported fin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the satisfaction with the search results was relatively low.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 regarding university library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considerations for information services reflecting daily life information needs, and future research agenda.

*Keyword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ELIS), Online diary survey

• 논문접수: 2023년 9월 7일 • 최초심사일: 2023년 9월 28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0월 16일

1. 서론

대학생 이용자 그룹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를 규명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은 대학생 이용자 그룹이 지니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Savolainen(2021)이 밝힌 바와 같이 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나이와 역할이다. 정보추구행위의 나이 영향요인 측면에서 보면, 대학생 이용자 집단은 활발하게 다양한 정보요구를 지니며, 다양한 정보원에서 정보를 찾고, 이용하고, 확산하는 세대적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대학생이라는 역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업환경과 일상생활 맥락에서 정보에 대한 복합적 요구를 지니며, 정보추구행위를 영위하는 이용자 집단이다. 이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과 일상생활이 혼재된 맥락에서 그들의 정보요구를 규명하고, 정보추구행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업 맥락 중심, 일상생활 맥락 중심, 정보기술 맥락 중심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학업 맥락(Dahlen & Hanson, 2023; Dahlen et al., 2020; Asher & Duke, 2012)에서 정보추구행위는 주로 학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보요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논의이다. 주된 연구결과는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보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편 대학생들의 일상생활 맥락(Barahmand et al., 2019; Given, 2002)이 중심이 된 연구들은 일상생활 맥락에서 사회문화적 요인과 함께 대학생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를 규명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정보기기와 정보매체에 대한 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발하게 이용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정보기술 맥락에서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들(권나현 외 2013; 곽지혜, 김현희, 2015)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유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이용자 그룹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유학생 이용자 그룹은 기존의 대학생이 지닌 나이와 역할 요인과 함께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낯선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정보추구행위 맥락을 지녔다. 유학생 이용자 그룹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학업 맥락과 일상생활 맥락(Hertzum & Hyldegård, 2019; Sin & Kim, 2018)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유학생들은 낯선 국가에 새롭게 정착하여 학업과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착단계별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국외 연구들(Oh et al., 2014; Oh & Butler, 2016; Yoon & Chung, 2017)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내로 이주한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소수 이루어졌다(윤정원, 2022; 황라헬, 2019). 그러나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대학생이라는 세대적 특성을 지니면서 지리적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학업과 삶을 영위하는 유학생 이용자 그룹의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로 유학을 온 해외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학생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폭넓은 연구가 부

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로 유학을 온 해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학생들의 일상생활 맥락에서 정보추구행위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 연구문제 2: 유학생들의 정보요구 주제에 따라 정보추구행위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국내로 이주한 해외 유학생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이해는 도서관과 같은 정보 서비스 기관이나 정보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민 등과 같은 이주 환경을 경험하는 여러 이용자 그룹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이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관련 연구

이용자의 정보추구행위는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고,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나이와 역할은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Savolainen, 2021). 이 연구는 다른 국가에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행위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인 대학생의 정보행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우선 검토하고, 보편적인 대학생 이용자 그룹과 비교하여 보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용자 그룹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대학생 이용자 그룹

이용자의 정보행위를 탐구한 연구 중에서 특히 대학생 이용자 그룹의 정보행위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행위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보행위라는 관점에서 학술, 일상생활, 정보기술의 맥락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대학생의 학술 환경 맥락에서 정보행위를 탐색한 연구는 Dahlen과 Hanson(2023), Dahlen, Haeger, Hanson, & Montellano (2020), Asher & Duke(2012) 등을 찾아볼 수 있다. Dahlen과 Hanson(2023)은 대학생 50명의 Social Science Abstracts 데이터베이스 검색 경험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검색과정을 수행하는 검색과정이 기록되었으며, 심층면담 질문이 주어졌다. 검색과정 기록과 심층면담 내용에 대한 주요한 분석 항목은 검색결과 페이지 이용, 실패한 검색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 정보 평가와 선정이다. 검색과정에서 검색결과 페이지의 이용은 대

부분의 학생이 항상(48%) 혹은 종종(26%) 첫번째 페이지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여 살펴본다고 응답하였다. 실패한 검색에 대한 대응 전략은 질의어를 수정하는 것(62%)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실패한 검색에 대하여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이다. 검색된 결과 중에서 특정한 항목을 선정하는 이유로는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 최신성, 신뢰성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정보 리터러시 교육, 담당교과목 교수의 역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른 관점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Dahlen, Haeger, Hanson, & Montellano (2020)이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정보검색행위와 검색도구 사용에 있어서 패킷 사용에 대한 양적분석결과를 심층면담과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디스커버리 시스템의 검색 기능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특정 패킷의 사용과 연구참여자에 의해서 선정된 정보자원의 품질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Asher & Duke(2012)는 학과목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학술 맥락에서 학생들의 정보추구행위를 탐색하였다. 총 60명의 대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검색 수행과정과 심층면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선정, 검색 수행, 정보자원 평가, 문제 직면 시 해결방법, 도움요청의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정보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할 때 과거에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베이스가 선정된 후에는 연구참여자는 대체로 적절한 검색 방식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의 결과가 제시된 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자원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검색 결과의 두 번째 페이지를 검토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직면한 문제, 링크 오류, 속도 저하, 불안정한 서지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정보원의 이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혔던 것처럼, 사서나 헬프데스크에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정보행위 연구의 두 번째 맥락은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 있으며, Barahmand, Nakhoda, Fahimnia, & Nazari(2019)의 연구는 Savolainen's(1995)의 ELIS(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모델에 기반하여 일상생활 맥락에서 대학생의 정보추구행위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1명의 1학년 여자대학생이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코드화되어 분석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상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심층면담에 참여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정보추구행위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문화적인 규범과 가치가 반영된 다면적 현상이다. 일상생활정보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세 가지 요인은 일상생활과 정보자원의 규범적 상태와 개인의 특성이라고 밝혔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 행위와 선택하는 정보자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회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적 특성이 능동적 정보탐색과 수동적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iven(2002)의 연구는 캐나다 도서관에서 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보추구행위를 분석하였다. Given의 연구는 대학생들의 정보추구행위는 학술 정보 요구와 일상생활 맥락에서의 정보요구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정보추구행위에는 사회적 문화적 역할이 중요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학술과 일상생활 맥락의 정보추구행위의 교류가 일어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개인의 정보추구행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을 별개로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 대학생의 정보행위의 맥락으로는 정보기술 환경을 찾아볼 수 있다. 권나현 외(2013)의 연구와곽지혜 & 김현희(2015)의 연구는 정보추구행위를 탐구하는데 있어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탐색하였다. 권나현 외(2013)의 연구는 총 83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학업과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정보기기 활용에 대하여 일상관찰기록법과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다. 주된 연구 목적은 정보기기의 유형, 사용목적, 활용패턴을 규명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주로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스마트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기별로 사용 시간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고, 대학원생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맥락에서 정보기기의 사용을 살펴보면, 학업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쇼핑과 문화/레저 생활의 영역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더욱 빈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곽지혜 & 김현희(2015)의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도서관의 모바일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전공, 학년, 대학, 유용성, 혁신성, 스마트폰 의존도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 소재 4년제 종합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309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년과 유용성은 도서관 모바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마트폰 의존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개인의 혁신성은 스마트폰의 확산과 대중화로 점차 영향력이 작아질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도서관 모바일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성별, 전공, 대학, 스마트폰 의존도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도서관 스마트폰의 콘텐츠가 도서관 모바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2.2.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행위를 연구하는 논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일상생활 맥락의 정보추구행위를 다룬 연구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것은 앞서 살펴 본 일반적인 대학생의 정보행위의 맥락이 학술적인 정보요구와 이에 대한 정보행위가 보편적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유학생은 자신의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삶을 시작하고 정착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Hertzum & Hyldegård(2019)의 연구는 덴마크 대학에 재학중인 4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어떻게 학업과 일상생활의 정보요구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정보행위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정보행위와 정서적인 관점을 함께 살펴봤으며, 정보추구행위가 문화적인 적응과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참여자 4명은 10건의 일상관찰기록지를 제출하였으며, 3번의 심층면담에 참여하였다. Hertzum & Hyldegård는 일상관찰기록과 심층면담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학생의 정보요구와 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소속 대학, 문화, 개인, 상황과 같은 4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문화적인 요인은 타국에서 이주해 온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인 요인은 개별 대학생의 차이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며, 이 두 정보요구는 서로 연계되었음을 밝혀냈다. 학업관련 정보요구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상생활 관련 정보요구는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느꼈다고 제시하였다. Hertzum & Hyldegård(2019)의 연구가 4명의 유학생들 대상으로 수행한 심도 깊은 질적 연구임에 반해 Sin & Kim(2018)의 연구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의 내국 학생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1,259건을 분석하여, 정보요구, 장애 요인에 있어서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국 학생과 유학생은 중요한 정보요구와 장애요인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에 관한 정보요구가 두 집단 사이에 가장 중요하며, 정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적합한 정보와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 학생과 유학생은 정보추구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정보요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유학생이라는 지리적인 정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착 단계를 거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추구행위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정착단계에 주목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Oh, Butler, Lee(2014)의 연구는 20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보요구, 정보원, 정착경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반구조화 면담, 설문지, 인지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정보요구는 기본적인 생존관련 정보에 집중되었으며, 인터넷 기반의 정보원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국과 유학 온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중요한 정보원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보추구행위에 있어서 특징적인 사항으로 정보를 찾아 방향하는 행위와 우연한 정보와의 조우 행위가 나타났다. Oh & Butler(2016)의 연구는 Oh, Butler, Lee (2014)년에 수행된 연구의 후속 연구로써 유학생 1년차와 유학생 2년차 두 시기의 정보행위를 탐색하였다. 유학생 1년차 시기의 학생 14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57명은 후속 면담에 참여하였다. 유학생 2년차 시기에는 이 중에서 50명이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에 참여하였다. 유학생의 정보요구는 앞선 2014년 연구와 유사하게 식료품 구입, 교통수단 등과 같이 생존과 관련된 정보요구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2년차 유학생들의 정보요구와 비교하면, 생존관련 정보요구가 여전히 여가활동에 관한 정보요구 보

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2년차 시기에 모바일, 온라인, 지리정보 등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2년차 유학생들의 같은 국가유학생에 대한 의존이 줄고, 지역 정보원 사용이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Yoon & Chung(2017)의 연구는 유학생들의 정착단계별 정보요구, 정보원, 평가에 관하여 탐색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지에 60명 참여, 온라인 일기 설문지에 28명 참여, 12명에 심층면담 설문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유학생들의 유학 국가 도착 이전 시기의 정보요구는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것 보다는 일상생활에 관련되었으며, 다소 넓은 주제의 모호한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사용하는 정보원은 유학국가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나 인터넷 정보원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유학국가에 정착하면서 이러한 정보요구는 보다 구체화되고, 검색 경험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외 유학생이 국내로 이주하여 학업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황라헬(2019), 윤정원(2022)을 찾아볼 수 있다. 황라헬(2019)의 연구는 184건의 유효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일상정보 이용행태와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일상정보 이용행태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위과정, 한국어 능력, 전공분야와 같은 개인적 특성 요인에 따라 자주 찾는 정보의 유형, 정보원,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정보, 식생활정보, 쇼핑정보, 한국뉴스, 오락/취미 정보를 더 자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에 있어서는 성별, 국적, 학위과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은 소셜미디어, 모국인 친구, 가족/친지, TV와 라디오를 더 자주 이용하며, 남성은 웹검색을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일상생활 정보행태를 살펴보면, 자주 찾는 정보는 주변화형과 분리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주 이용하는 정보원은 통합형과 분리형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윤정원(2022)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단계를 3단계(입국 전, 초기 정착단계, 현재)로 구분하여, 정착단계별 정보추구행위의 특성을 결정적사건기법(Critical Incident Technology)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유학생들은 학업에 관련된 정보요구보다 일상생활에 관련된 요구를 빈번하게 보고하였다.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였으나, 웹사이트와 같은 일방향 정보원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반면, 소셜미디어나 친구 등의 양방향 정보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국내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상관찰기록법(diary

study)을 사용하였다. 일상관찰기록법은 일상적인 활동이나 경험을 생생하게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대학생 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과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행위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연구방법이다(권나현 등, 2013; Chung & Yoon, 2015; Hetzum & Hyldegård, 2019; Rieh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국내 유학생들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정보 요구를 가지며,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고, 어떻게 정보추구행위 경험을 인식하는지를 조사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일상관찰기록 질문지는 Chung, Yoon(2015)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개발되어 정보요구, 탐색시간, 정보원, 정보 탐색에 사용한 디지털 기기, 정보 탐색결과에 대한 만족도, 정보 탐색 과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윤정원(2022)에서 보고된 유학생들의 정작단계별 정보탐색행위연구에 참가한 유학생들 중에서, 온라인 일상관찰기록법 연구에 참여를 지원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구체적인 데이터수집 방법은 윤정원(2022) 참고). 온라인 일상관찰기록법 연구 참여 지원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 참여방법 및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예시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비대면으로 가졌다. 일상관찰기록 조사는 연속 3일 동안 참여하도록 구성되었는데, 평일과 주말의 정보활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일 2일 주말 1일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2021년 9월 12일부터 14일(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또는 2021년 9월 23일부터 25일(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 선호하는 실험 날짜를 선택하도록 안내되었다. 연구팀은 참여자에게 하루에 3번(12:00, 17:00, 22:00) 카카오톡을 통하여 온라인 질문지 링크를 보냈으며, 참여자들에게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보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1회의 온라인 질문지마다 최대 3가지의 정보 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17명의 참여자로부터 총 138가지 정보 활동을 수집하여 참여자 평균 8.12개의 정보 활동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17명의 유학생들의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 분포는 20-23세 5명, 24-27세 8명, 28세 이상 4명이며, 학위과정은 학부 7명, 대학원과정 10명이었다. 출신지역 및 국가별로는 아시아권이 14명으로 우세했으며 그 외에 유럽,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가 각 1명이었다. 한국 거주기간은 1년 이하 4명, 1년 초과 - 3년 미만 8명, 3년 이상 5명이었고,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유창하다는 유학생들이 많았다(참가자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특성은 윤정원(2022) 참고).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은 미국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Chung, Yoon(2015)와 Sin, Kim(2013)의 코딩 카테고리틀을 바탕으로 하되, 국내 유학생들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표 1>은 각 카테고리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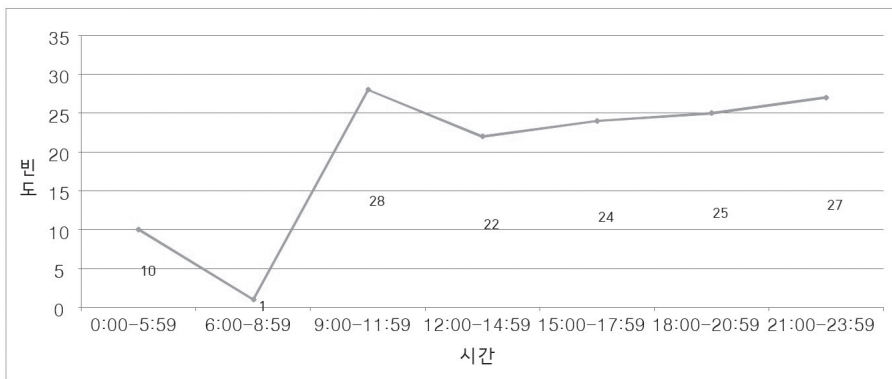
<표 1> 정보요구 카테고리와의 예

정보요구	예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식사 후 두통 발생. 두통 완화와 카페인과의 관계 (P11) * 건강보험 자동 이체 신청방법 (P14) * 백신 접종 후 차를 마셔도 되는 지 검색 (P2) * 연인의 생리통 완화를 위한 방안 (P9) * 금연을 위한 치료법 검색 (P13)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작성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논문과 자료 수집 (P17) *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석사 학위 정보 검색 (P13) *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과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 검색 (P1) * 통계 수업을 위하여 ANOVA와 관련된 정보 검색 (P14)
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검색 (P18) * 남성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추천 선물 목록 검색 (P17) * 주문한 상품의 배송 현황과 문제에 대해 문의하기 위하여 물류 회사의 전화번호를 검색 (P9)
음식/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에서 꼭 가봐야 하는 식당과 혹은 먹어봐야 하는 음식 정보 및 학교에서 가까운 식당 검색 (P1) * 최근에 구매한 돼지 귀로 요리할 수 있는 베트남 레시피에 관하여 검색 (P2) * 김치찌개를 끓여 먹기 위해 레시피 검색 (P17) * 식사를 위하여 배달 음식 검색 (P4)
오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이 유명하다기에 궁금하여 검색 (P17) * 휴식을 위하여 사우나에 관하여 검색 (P11)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가스요금 미납액수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검색 (P17) * 결혼사진을 촬영할 장소를 정하기 위하여 스튜디오 검색 (P19) * 한옥마을에 방문하기 위하여 전주 일기 예보 검색 (P22)
한국어/한국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는 한국어 단어를 해석하고자 단어 한국어 단어 검색 (P11) *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한국어 문법에 관하여 검색 (P8)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학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관하여 검색 (P13) * 송금 방법, 계좌 입금 방법 검색 (P9)
기술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메시지에 답장하기 위하여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확인 (P21) * 본인 컴퓨터의 윈도우 10 일부 기능에 발생한 문제를 수리하기 위하여 정보 검색 (P8)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인과의 여행을 미리 계획하고자 부산의 관광지에 관하여 검색 (P9) * 혼자 여행 갈 수 있는 장소에 관하여 검색 (P7)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내 코로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 검색 (P17) * 한국과 베트남 두 국가의 코로나 현황을 파악하고자 정보 검색 (P1)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고 싶어서 기차표에 관하여 검색 (P13) * 졸업식 이후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표에 관하여 검색 (P13)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를 대비하기 위한 구직 정보 검색 (P13) * 국제 학생으로서 국제 학생 취업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검색 (P1)
법률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를 갱신하기 위하여 비자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검색 (P4)

4. 결과 분석

4.1. 정보탐색행위 특성

국내 유학생들의 정보탐색행위의 일반적인 특성은 <그림 1>과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국내 유학생들은 오전(9:00 - 11:59)과 밤(21:00-23:59)에 정보탐색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도 정보탐색 행위가 꾸준히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 시간은 30-59분(28.5%)과 5-14분(26.3%)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검색언어는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영어를 사용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으며(51.4%) 한국어를 사용한 경우는 38.7% 였다. 정보탐색 시 사용한 디지털기기 중 스마트폰의 사용이 59.0% 였다. 정보원의 경우 검색엔진이 과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51.1%)이었고, 모바일 앱과 SNS가 그 뒤를 이었다. 탐색 결과에 대해서는 75.36%가 정보를 찾았다고 하였으며, 84.79%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고, 63.04%가 추가 검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림 1> 정보탐색행위 시간별 분포

<표 2> 정보탐색행위 특성

구분		빈도	%
탐색소요시간	0-4분	22	16.1
	5-14분	36	26.3
	15-29분	18	13.1
	30-59분	39	28.5
	60분 이상	22	16.1
	계	137	100.0

검색언어(복수응답)	한국어	67	38.7
	영어	89	51.4
	모국어	17	9.8
	계	173	100.0
사용기기(복수응답)	스마트폰	85	59.0
	노트북	43	29.9
	데스크탑	11	7.6
	태블릿	5	3.5
	계	144	100.0
정보원(복수응답)	검색엔진	90	51.1
	모바일 앱	21	11.9
	SNS	20	11.4
	특정 웹사이트	14	8.0
	유튜브	12	6.8
	모바일 맵	5	2.8
	대학도서관	4	2.3
	친구/가족	4	2.3
	구글스칼라	2	1.1
	기타 학술정보	2	1.1
	기관/관련자	2	1.1
	뉴스 기사	0	0.0
	계	176	100.0
탐색 결과	정보를 찾지 못함	1	0.72
	정보의 일부만 찾음	33	23.91
	정보를 찾음	104	75.36
	계	138	100.0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0	0.00
	불만족	4	2.90
	보통	17	12.32
	만족	49	35.51
	매우 만족	68	49.28
	계	138	100.0
향후 탐색	필요하지 않음	87	63.04
	포기함	8	5.80
	필요함	41	29.71
	기타	2	1.45
	계	138	100.0

4.2. 탐색주제에 따른 정보탐색행위 특성

국내유학생들이 찾은 정보의 주제는 건강, 학업, 쇼핑, 음식/외식, 오락, 생활, 한국어/한국문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3>). 건강에 대한 정보요구가 많았던 이유는 데이터 수집 시기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던 시기였다는 것에 기인했다고 여겨진다¹⁾. 탐색주제 중 상위를 차지한 분야 (건강, 학업, 쇼핑, 음식/외식, 오락, 생활)를 대상으로 정보탐색행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 3> 탐색주제

정보요구	빈도	%
건강	30	21.6
학업	26	18.7
쇼핑	18	12.9
음식/외식	17	12.2
오락	10	7.2
생활	10	7.2
한국어/한국문화	7	5.0
재정	4	2.9
기술적 문제	4	2.9
여행	3	2.2
뉴스	3	2.2
교통	2	1.4
취업	2	1.4
법률 문제	1	0.7
기타	1	0.7
계	139	100.0

1) 한국리서치의 2021년 9월 10일 - 13일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여전히 63%였다 (이소연, 2021년 9월 15일, [코로나 19] 상황 백신 접종 인식 및 정부대응평가 (2021년 9월 2주차)) <https://hrcopinion.co.kr/archives/19324>

4.2.1. 탐색시간 및 언어

탐색시간은 학업관련 주제의 탐색시간이 전반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분 이상의 탐색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답변이 68.9%이며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는 답변도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쇼핑, 음식/외식, 오락, 생활 관련 주제에서는 14분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탐색 언어의 특성으로는 음식/외식 관련 탐색에서는 한국어의 사용 비율이 높았으나 건강 관련 정보에서는 한국어의 사용비율이 낮았다. 오락과 건강 분야에서 모국어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은 해당 주제 분야는 한국의 사회적인 배경과 관련 없는 정보 탐색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표 4>).

<표 4> 탐색시간 및 탐색언어의 주제별 특성

		건강		학업		쇼핑		음식/외식		오락		생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탐색 시간	0-4분	7	23.3	2	7.7	2	11.1	3	17.6	2	22.2	3	30.0
	5-14분	7	23.3	4	15.4	7	38.9	7	41.2	5	55.6	2	20.0
	15-29분	4	13.3	2	7.7	0	0	4	23.5	2	22.2	1	10.0
	30-59분	7	23.3	11	42.3	8	44.4	2	11.8	0	0	4	40.0
	60분 이상	5	16.7	7	26.9	1	5.6	1	5.9	0	0	0	0
	계	30	100.0	26	100.0	18	100.0	17	100.0	9	100.0	10	100.0
탐색 언어	한국어	7	20.0	11	31.4	8	33.3	15	75.0	4	40.0	4	40.0
	영어	21	61.8	20	57.1	8	66.7	4	20.0	4	40.0	5	50.0
	모국어	6	17.6	4	11.4	0	0	1	5.0	2	20.0	1	10.0
	계	34	100.0	35	99.9	24	100	20	100.0	10	100.0	10	100.0

4.2.2. 사용 기기 및 정보원

정보탐색 시 사용기기와 정보원에서도 정보요구 주제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학업관련 주제에서는 노트북의 사용이 63.6%였으나 다른 주제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의 이용이 높았다. 특히, 음식/외식, 쇼핑, 오락 등에서 스마트폰의 이용이 높았다. 학업관련 주제에서도 스마트폰의 이용이 31.8%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업관련 정보 탐색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데스크탑의 사용은 모든 주제 분야에서 보고되지 않았다(<표 5>).

<표 5> 사용기기 및 정보원의 주제별 특성

		건강		학업		쇼핑		음식/외식		오락		생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사용기기	스마트폰	20	62.5	7	31.8	13	72.2	15	93.8	7	70.0	6	60.0
	노트북	10	31.25	14	63.6	5	27.80	1	6.2	2	20.0	3	30.0
	데스크탑	0	0.0	0	0.0	0	0.00	0	0	0	0	0	0
	태블릿	2	6.25	1	4.6	0	0.00	0	0	1	10.0	1	10.0
	계	32	100.0	22	100.0	18	100.0	16	100.0	10	100.0	10	100.0
정보원	검색엔진	22	66.7	20	51.3	8	33.3	6	27.3	7	58.3	7	63.6
	모바일 앱	1	3.0	0	0	10	41.7	6	27.3	0	0	1	9.1
	SNS	4	12.1	3	7.7	2	8.3	2	9.1	2	16.7	2	18.2
	특정 웹사이트	3	9.1	4	10.3	1	4.2	1	4.6	0	0	0	0
	유튜브	2	6.1	4	10.3	1	4.2	2	9.1	3	25.0	0	0
	모바일 맵	0	0	0	0	1	4.2	3	13.6	0	0	0	0
	대학교 도서관	0	0	4	10.3	0	0	0	0	0	0	0	0
	친구/가족	1	3.0	1	2.6	0	0	1	4.6	0	0	1	9.1
	구글 스칼라	0	0	1	2.6	1	4.2	0	0	0	0	0	0
	기관/관련자	0	0	0	0	0	0	1	4.6	0	0	0	0
	기타 학술정보	0	0	2	5.1	0	0	0	0	0	0	0	0
	뉴스 기사	0	0	0	0	0	0	0	0	0	0	0	0
	계	33	100.0	39	100.0	24	100.0	22	100.0	12	100.0	11	100.0

정보탐색을 위해 사용한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 쇼핑과 음식/외식을 제외한 주제 분야에서는 검색 엔진이 50% 이상 사용된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쇼핑에서는 모바일 앱(41.4%), 음식/외식에서는 모바일 앱(27.3%)과 모바일 맵(13.6%)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건강, 오락, 생활 분야에서는 SNS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유튜브는 오락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학업 분야에서도 학술관련 정보원(대학교 도서관(10.3%), 구글 스칼라(2.6%), 기타 학술정보(5.1%))의 사용이 높지 않은 것이 특이점으로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탐색, 유학생이나 이민자의 정보탐색에서 주요 정보원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친구/가족이 정보원으로 보고된 경우가 낮은 것도 본 연구결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4.2.3. 탐색 결과 및 만족도

<표 6>은 유학생들의 탐색 결과, 만족도 및 향후 탐색 필요성의 탐색주제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음식/외식과 오락에 관한 탐색에서는 정보를 찾은 비율(각각 100%), 검색결과의 만족도(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 각각 100% 와 90%), 향후 탐색의 불필요성(각각 82.4%, 90%)이 높았다. 학업 관련 정보탐색 결과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일부만 찾았다는 비율이 다른 주제 카테고리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56.2%). 그러나 탐색결과 만족도와 향후 탐색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쇼핑과 생활 주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업 분야에 비교해 봤을 때, 쇼핑과 생활 분야는 필요한 정보를 찾았다는 비율은 높았으나, 탐색 결과의 만족도는 낮았으며 향후 탐색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비율도 더 높았다.

<표 6> 탐색결과 및 만족도의 주제별 특성

		건강		학업		쇼핑		음식/외식		오락		생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탐색 결과	정보를 찾지 못함	0	0	1	3.9	0	0	0	0	0	0	0	0
	정보의 일부만 찾음	7	23.3	11	42.3	6	33.3	0	0	0	0	4	40.0
	정보를 찾음	23	76.7	14	53.9	12	66.7	17	100.0	10	100.0	6	60.0
	계	30	100.0	26	100.0	18	100.0	17	100.0	10	100.0	10	100.0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0	0	0	0	0	0	0	0	0	0	0	0
	불만족	1	3.3	1	3.85	1	5.6	0	0	0	0	0	0
	보통	5	16.7	2	7.7	3	16.7	0	0	1	10.0	3	30.0
	만족	9	30.0	11	42.3	8	44.4	6	35.3	4	40.0	4	40.0
	매우 만족	15	50.0	12	46.15	6	33.3	11	64.7	5	50.0	3	30.0
	계	30	100.0	26	100.0	18	100.0	17	100.0	10	100.0	10	100.0
향후 탐색	필요하지 않음	18	60.0	15	57.7	8	44.4	14	82.4	9	90.0	4	40.0
	포기함	3	10.0	2	7.7	0	0	0	0	0	0	1	10.0
	필요함	9	30.0	9	34.6	10	55.6	3	17.6	1	10.0	4	40.0
	기타	0	0	0	0	0	0	0	0	0	0	1	10.0
	계	30	100.0	26	100.0	18	100.0	17	100.0	10	100.0	10	100.0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를 일상관찰기록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유학생들의 정보탐색행위를 보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높고, 검색엔진을 많이 사용하며, 정보 탐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주 찾는 정보의 주제는 건강, 학업, 쇼핑, 음식/외식, 오락, 생활 등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이유는 국내의 코로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다. 탐색주제에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탐색행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에 관련된 정보탐색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음식/외식 분야에서는 한국어 검색비율이 높았다. 학업 관련 주제 이외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탐색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정보탐색을 위해 사용한 정보원의 경우, 쇼핑과 음식/외식에서는 모바일 앱의 이용율이 높았으나 나머지 주제분야에서는 검색엔진의 사용비율이 50% 이상이었다. 특히, 학업 분야 탐색에서 학술 특화 정보원의 사용이 높지 않은 점, 유학생이나 이민자의 정보탐색에서 주요 정보원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친구/가족이 정보원으로 보고된 경우가 적은 점은 본 연구결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탐색 결과와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음식/외식과 오락에서는 탐색결과와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학업 관련 정보탐색에서는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일부만 찾았다는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색결과에 만족하고 향후 탐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쇼핑과 생활 분야는 필요한 정보를 찾았다는 비율은 높았으나, 탐색 결과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Chung, Yoon(2015)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Chung, Yoon(2015)의 일상관찰기록 질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질문지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두 연구간의 비교가 용이한 점이 있다. 다만, 대학생의 정보추구행위에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Barahmand, Nakhoda, Fahimnia & Nazari, 2019; Given, 2002), Chung, Yoon(2015)의 연구는 2014년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시점(2014년과 2021년), 거주국가(미국과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 참여 유학생의 인구학적인 특성의 차이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요소들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 점이 있다.

탐색 주제를 보면, Chung, Yoon(2015) 연구에서는 학업, 쇼핑, 오락, 생활, 교통, 음식/외식 분야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주제의 정보요구가 상위권을 보여주었다(건강, 학업, 쇼핑, 음식/외식, 오락, 생활). 본 연구에서 건강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것은 앞서도 설명했듯이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특성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음식/외식 분야의 탐색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식당검색 및 배달 등에 관련한 검색이 확산된 시대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정보추구행위 시 사용 기기와 정보원에서도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사용 기기에 있어서 Chung, Yoon(2015)의 연구에서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순서로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순서가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바뀌어, 정보추구행위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보원에 있어서 Chung, Yoon(2015)의 연구에서는 검색엔진, SNS, 가족/친구가 상위 정보원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검색엔진, 모바일 앱, SNS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앱이 좀 더 상용화된 것 역시 시대적 차이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모바일 앱의 성장과 이용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의 증가율을 보면 2016년 141억 건, 2021년 230억 건, 그리고 2022년 255억 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Ceci, 2023), 모바일 기기 사용시간의 88%는 앱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urmser, 2020).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모바일 앱 사용량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oodbarber Team, 2021). 그러나 이와 같은 모바일 앱 사용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 정보추구행위에서는 여전히 가장 주요한 정보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가족/친구가 정보원으로 보고되지 않는 것은 본 연구 결과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결정적사건기법을 사용해 국내유학생들의 정보추구행위를 조사한 윤정원(2022)의 연구에서는 가족/친구처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만족도가 검색엔진(웹사이트)과 같은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이는 결정적사건기법의 연구방법 특성상 정착 단계별 어려웠거나 중요했던 사건과 관련된 정보추구행위를 조사했기 때문에, 참가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중요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험의 공유와 감정적 지원이 가능한 친구/가족이 정보원으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3일간 일상 속에서 수행했던 정보추구행위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는 유학생들이 친구/가족 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친구/가족에 대한 정보원으로서의 의존도는 이민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선행연구(Jang, Yoon & Park, 2018)와 비교해 볼 때,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높은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원 선택 경향을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사용 기기와 정보원의 특성은 탐색주제별로 분석했을 때에도 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Chung, Yoon(2015)은 네 가지 주제(학업, 쇼핑, 오락, 생활)에서 사용되는 사용 기기와 정보원을 분석했는데, 모든 분야에서 노트북과 검색엔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에서는 노트북, 쇼핑, 오락, 생활에서는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학업, 오락, 생활에서는 검색엔진, 쇼핑에서는 모바일 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보원이었다. 사용 기기와 정보원 역시 시대에 따른 정보탐색행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중 유학생들의 학업에 관련한 정보탐색행위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학업에 관련한 정보탐색을 위해 사용 정보원 중 대학도서관, 구글 스칼라, 학술관련 정보원을 사용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으며, 검색엔진과 유튜브의 사용비율이 60%를 넘었다. 또한, 다른 주제보다 정보탐색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다른 주제분야에 비해 관련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일부만 찾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오히려 탐색 만족도는 높았으며 추후 탐색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즉, 요약하면 학술관련 정보원 사용 비율이 낮으며, 검색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추가 검색을 하지 않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Asher & Duke(20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술 정보추구행위를 연구한 결과, 학술데이터 베이스의 적절한 검색 방식에 대한 이해가 낮고, 검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보원을 포기하고, 사서나 헬프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유학생들의 학술정보 사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학생들이 학업관련 검색에 학술자료의 사용비율이 낮고, 필요 정보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검색을 하지 않는 경향은 유학생들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한다. 유학생들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교육시스템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또는 대학원생)과는 별도로 유학생들에게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은명, 이정규, 오동근(2015), 이지옥, 이용재(2020), 이현실, 황동렬(2007) 등의 연구에서 이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컨설팅과 정보이용교육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대학 도서관의 서비스는 유학생들의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술 정보원의 선택, 탐색과정, 검색 결과의 평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Asher & Duke(2012)이 밝힌 대학생들의 정보탐색포기와 사서 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례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요구와 추구행위를 살펴보면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정보요구에 따라 정보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 폰과 모바일 앱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었으며(GoodBarber Team, 2022) 이는 일상생활의 정보추구행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는 정보요구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정보요구에 따라 거주 국가의 정보원 또는 모국의 정보원을 사용하며, 영어, 한국어, 모국어를 필요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원(202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정보요구의 맥락에 따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적 정보원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검색엔진 등의 정보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의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황이다. 유학생들에게 정보추구행위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다. 따라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추구행위 역시 변화하기 때문에, 일회성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 연구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교차연구와 종단연구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학생들의 정보 요구와 탐색행위를 반영하는 포괄적이고 대규모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심도 깊고 실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기관에서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러한 연구는 국내의 이민자 등과 같이 이민의 경험을 갖는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 지역에서 소수의 유학생을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국내 유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후속 연구의 중요성과 대학도서관과 정보제공기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권나현, 이정연, 정은경, 장길수, 윤혜진 (2013). 넷세대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이용과 정보기기 활용 비교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2), 269-295.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2.269>
- 김현희 (2015).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도서관 모바일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4), 223-247.
- 박은명, 이정규, 오동근 (2015).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분석: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243-253.
- 윤정원 (2022).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 단계에 따른 정보추구행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27-45.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1.027>
- 이지옥, 이용재 (2020).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K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281-302.
- 이현실, 황동렬 (2007). 외국인 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정보이용 교육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45-165.
- 황라헬 (2019).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일상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Asher, A.D., & Duke, L.M. (2012). Searching for answers: student research behavior at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College libraries and student culture: What we now know*, Asher, A.D., Duke, L.M. (Eds.),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71-86.
- Barahmand, N., Nakhoda, M., Fahimnia, F., & Nazari, M. (2019). Understanding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 the context of coping with daily hassles: A grounded theory study of female student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41(4), 100980.
- Ceci, L. (2023, April 21). The number of mobile app downloads worldwide from 2016 to 2022. Available: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1644/worldwide-free-and-paid-mobile-app-store-downloads/> accessed on 20 May 2023.
- Chung, E. & Yoon, J. (2015). An exploratory 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formation needs and uses. *The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39(1), 36-59.
- Dahlen, S.P.C, & Hanson, K. (2023). In their words: student reflections on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9(4). doi.org/10.1016/j.acalib.2023.102713
- Given, L. M. (2002). "The Academic and the Everyday: Investigating the Overlap in Mature Undergraduates'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 Research 24 (1): 17-29.
- Goodbarber Team (2021. August 23). The growth of mobile apps: what do statistics say? Available: <https://www.goodbarber.com/blog/the-growth-of-mobile-apps-what-do-statistics-say-a1095/> accessed on 20 May 2023.
- Hertzum, M. & Hyldegård, J. S. (2019). Information seeking abroad: an everyday-life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Documentation*, 75(6), 1298-1316.
- Oh, C. Y. & Butler, B. S. (2016). "Newcomers from the Other Side of the Globe: International Students' Local Information Seeking During Adjustment."
- Oh, C. Y., Butler, B. S., & Lee, M. (2014). Information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settling in an unfamiliar geo - spatial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1(1), 1-11.
- Rieh, S. Y., Kim, Y. M., Yang, J. Y., & St. Jean, B. (2010). A diary study of credibility assessment in everyday life information activities on the Web: Preliminary finding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7(1), 1-10.
- Savolainen, R.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3), 259-294.
- Savolainen, R. (2021). Levels of critique in models and concepts of human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Aslib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73(5), 772-791.
- Sin, S. C. J. & Kim, K. S. (2013).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the informational value of social networking sit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5(2), 107-116.
- Sin, S. C. J., & Kim, K. S. (2018). How are we the same or different: information needs and barrier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4(6), 712-723.
- S.P.C. Dahlen, H. Haeger, K. Hanson, M. Montellano Almost in the wild: Student search behaviors when librarians aren't looking.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6 (1) (2020), Article 102096, 10.1016/j.acalib.2019.102096
- Wurmser, Y. (2020. July 9). The majority of Americans' mobile time spent takes place in apps. Available: <https://www.insiderintelligence.com/content/the-majority-of-americans-mobile-time-spent-takes-place-in-apps> Accessed on 20 May 2023.
- Yoon, J. & Chung, E. (2017). International students'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urs throughout the settlement stages. *Libri*, 67(2), 119-128.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wang, R. (2019). A Study on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cculturation Types. Master 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Jang, Y., Yoon, J., & Park, N.S. (2018).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and unmet healthcare needs in Asian American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3(7), 652-660.
- Kwon, N., Lee, J., Chung, E., Chang, G., & Yoon, H. (2013). "Comparative Analyses of the Uses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e Everyday Life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ajoring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 (2): 269-295.
- Lee, J., & Lee, Y.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oreign user services in academic library: Focusing on the K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281-302.
- Lee, H., & Hwang, D. (2007). A case study of the information literacy course for foreign student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ducational effect and deman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145-165
- Park, E., Lee, J., & Oh, D. (2015).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versity library services for foreign students: With special regard to the university libraries in Daegu and Gyeonbuk area. *Proceedings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243-253.
- Yoon, J. (2022).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roughout the Settlement Stage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27-45.